

간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로, 그 무게는 성인의 경우 1.100~1.500g(평균 1.200g)이 된다. 간은 횡격막의 바로 밑에 있으며 복강(배)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 정상인의 간은 늑골(갈비뼈) 밑에 있어서 거의 만져지지 않으나 간염, 간경변, 간암 등의 간질환이 있거나 기타 여러 질병으로 인해 간이 커지면 간의 일부가 만져질 수 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 이유는 간은 생체 내의 어느 장기보다도 그 생화학적인 기능이 다양하고 활발하다. 첫째로 간은 소화흡수된 음식물, 약물 및 기타 여러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이곳 간에서 기본적인 대사과정을 밟게 하여 저장하거나 재분배해주는 기관이다. 이 기능은 다른 여러 장기들의 대사기능과 연관하여 이를 총괄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로 간 조직은 그 고유의 기능으로 알부민 및 여러 단백질들은 생합성하여 보급해주고 기타 생체활성물질들의 생성 및 처리 기능이 있다. 셋째로 간은 모든 외부, 내부의 독성물질들을 수용성(물에 녹는 상태) 형태로 변화시켜 밖으로 배출시키는 필수적인 장기이다. 즉 독성물질의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넷째로 간조직의 재생능력은 70%의 절제시에도 바로 원상의 크기로 회복될 수 있는 특수한 장기로서 생체내 정상조직의 발육, 분화, 성숙을 이해함에 좋은 정보제공체이다. 이와 같이 간의 기능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간질환이 생긴 경우에 다양한 증상과 검사소견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간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간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간은 여러가지 영양소의 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창자에서 소화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문맥이라는 커다란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운반된다. 간은 문맥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혈관계로 되어 있으며 간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대단히 많아

간질환의 개요

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의 1/3이나 된다. 또한 간은 혈액을 저장해 주는 "혈액저장탱크"의 역할을 하여 순환 혈액량을 조절한다.

간은 조직 1g당 약 20억 개의 세포를 갖고 있으며 그 중 60%는 간세포가 되고 간기능의 대부분이 간세포에서 일어난다.

간에서는 혈당을 만드는 데 곧바로 필요로 하지 않은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겐(저장형 당분)으로 전환하여 저장한다. 전격성 간염같이 간기능이 급격히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혈당유지 기능이 손상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작은 창자에서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온 아미노산



이동호
(충북의대 교수)

던 잇몸, 위장관 등에서 "출혈"이 일어나기가 쉽다.

간에서는 또한 지방산의 합성과 분해가 일어난다. 간기능이 나빠지면 이러한 지방질대사의 이상으로 간에

지며 이것은 예후가 지극히 불량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밖에도 간은 비타민 A, D, B₁, B₂, B₁₂ 등의 많은 비타민을 저장하고 있다. 또 어떤 비타민은 간에서 활성화되어 물질대사에 관여한다. 따라서 간질환이 있을 때에는 비타민의 결핍이 생기기 쉽다.

이와같이 간은 대사에 있어서 놀라운 정도의 융통성과 폭을 가지고 있다. 간은 영양소를 분배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기관에 영양소를 정확한 비율로 내보내며 음식물을 간혈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대사변동의 폭을 줄여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과잉의 아미노기(단백질의 분해

담)이 된다. 담즙 성분 중의 담즙산염은 지방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에도 매우 중요하다. 간질환과 췌장질환에서는 담즙산의 합성이나 배설이 중단되어 지방질은 소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채 대변에 나오게 된다. 이것을 "지방변"이라고 한다. 간질환에서는 지용성비타민인 A, D, E 및 K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들 비타민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다.

이 밖에도 간에는 음식물로 섭취한 식품첨가물, 방부제, 약제로서 복용 또는 주사된 여러가지 유기화합물들의 독을 제거하고 배설하는 주요한 "해독기능"이 있다. 간질환에서는 이러한 해독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외부로부터 들어온 또는 몸 안에서 생긴 유해한 물질이 체내에 축적된다. 심한 간질환에서 사람을 몰라보고 헛소리 하거나 혹은 의식이 없게 되는 등의 소위 "간성혼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독기능의 저하로 설명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간이 인체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간질환에는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임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질환의 원인은 또한 다양하다. 먼저 우리나라에 만연하는 B형 간염바이러스 외에 A형, C형, E형, E형 간염바이러스가 있다. 또한 아직 발견이 안되었지만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X형 간염바이러스도 있다. 바이러스 외에도 각종 세균(박테리아), 기생충(특히 간디스토마), 결핵질환이 원인이 되는 수도 있으며 알콜에 의한 간질환, 각종 약물에 의한 간질환이 있다. 또한 여러 원인에 의한 만성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간암이 생긴다. 결국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예방주사 접종, 지나친 음주의 절제, 위생적인 생활 습관 등이 필수적이며, 일단 간질환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간은 대사기능과 해독작용을 관할하는 장기 간염주사, 금주, 위생적인 생활이 예방법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흡수되어 작은 조각이 된 상태)은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주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특히 간은 혈액중에 있는 주요한 단백질 성분인 알부민,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등을 만든다. 혈청 알부민량이 떨어지면 몸이 붓게 되

지방이 축적된다. 이것을 "지방간"이라고 한다. 지방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간경변증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 술을 지나치게 장기간 섭취한 경우 "알콜성지방간", 당뇨병이 있는 경우, 지나친 비만증이 있을때 지방간이 오기 쉽다.

산물)를 콩팥에서 배설될 수 있는 요소나 다른 물질로 처리하는 등 여러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간은 담즙을 만들어 분비한다. 하루에 분비되는 담즙의 양은 500~800ml 가량이 된다. 담즙 성분 중에는 "빌리루빈"이라는 황색의 담

황달·흑달은 "빌리루빈" 색소이상인 원인 간기능저하되면 저혈당, 부종, 출혈 발생

는데 간질환시에 부종이 생기는 것은 바로 알부민을 간이 잘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트롬빈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간질환이 심해지

또한 간은 우리 몸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인 콜레스테롤의 합성 및 에스테르화 작용을 한다. 간질환이 심하게 악화되면(간경변증 말기) 혈청 콜레스테롤 값이 떨어

증색소가 들어 있는데, 간질환이 생기면 이 담즙색소의 배설에 지장이 와서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게 된다. 황달이 심해지면 피부색이 검게 되는 "흑

한일약품

일본제약시장을 1년만에 석권한 성인병예방 치료제

메바로친

메바로친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지방)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입니다.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는 동맥내벽에 생겨난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침착되어 소위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동맥내벽을 좁게 만들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와 합병증

● 뇌졸중(중풍)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줄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과 산소공급이 방해받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심장마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호흡근력에 의한 통증 및 쇼크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 협심증
심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고 췌는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의 새로운 도전 "메바로친"

- 메바로친은 89년 일본에서 개발된 최신향약품으로 월 70억엔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인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설시킵니다.
-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장에서만 작용하여 타장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바로친

표준소매가격 : 55,000원(50T)

본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본사 PM4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TEL.(02)464-0861 교환 584